

편모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정수경 **

본 연구는 편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편모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편모가족관계 및 개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설계된 집단 프로그램을 2000년 6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회 동안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이혼 및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된 편모가족의 가장 9명이었으며,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양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의 무려감과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사전·사후·추후 설문지를, 질적 분석으로 사회적 지지망을 측정하는 사회적 지지망표와 집단과정기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해 참가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특히 무려감이 감소되고 4개월 이후의 추후조사까지 감소된 무려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극단형 가족이 1/3 정도로 나타나 가족관계상 문제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였고, 3차 측정간에 극단형 가족이 중간형 가족으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편모가족의 사회적 지지망은 구체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개 친척에게서 구체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지를 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친구나 이웃들간에

* 이 연구는 2000년도 전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전주대 사회과학부 조교수.

는 양방향의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정의 분석을 통해, 편모라는 동질감과 그로 인한 공감적 상호지지가 편모가 된 이유나 연령에 상관 없이 가장 중요한 집단의 성공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편모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단기간의 집단 프로그램과 장기간의 지지 집단이 포함된 2단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이제 편부모 가족은 한국에서 더이상 특수한 가족형태가 아니다.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편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편부모 가구의 비율은 5.7%¹⁾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1997). 국내 대부분의 편부모 관련 문헌들(신화용·조병은, 1996: 25; 이경희·이소희·탕은영, 1995: 136; 최해경, 1997)이 편부모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상 편부모 가구의 비율은 1985년 6.2%, 1990년 5.8%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1990년 미국아동의 26% 이상이 편부모 가족 속에서 살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Castro & Bumpass, 1990; 최연실 등, 1995: 517에서 재인용). 즉, 전체 가구의 1/3이 편부모 가구로, 대안적 가족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편부모 가족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편모가족이므로 사회복지뿐 아니라 사회학, 가정관리학 등에서는 이에 관심을 두어왔다. 대부분의 편모가족은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와 경제적 어려움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Kissman & Allen, 1993: 2).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편모세대중 빈곤 편모세대²⁾는 1990년에 54.6%, 1991년에 65.2%, 1992년에 72.6%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1; 1992; 1993).

우리나라 편모가족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보면, 빈곤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김정자, 1988; 김인숙, 1994; 황성철·최선화, 1997; 박영란, 1998), 빈곤 편

1) 편부모 관련 문헌에서 편부모 가구 또는 편부모 가족의 비율은 최근 1990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최소 6%에서 최고 25%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한 비율은(편부모와 자녀 가구 중 가족주가 유배우자가 아닌 가구수/총일관가구수)×100으로 산출한 수치이다.

2) 국가에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요보호 편모가족을 말한다.

모가족을 중심으로 그 실태 및 욕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이윤석, 1995; 보건복지부, 1997). 또한 편모가족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 부모자녀관계, 가족기능, 또는 사회적 지원량 등에 관한 조사연구들이 있었다(조희선, 1991; 신화용 등, 1996; 김오남, 1997; 최해경, 1997; 권복순, 2000).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주로 편모가족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탐색 및 기술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편모가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탐색해 낸 후, 결과적으로 편모가족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편모가족의 문제에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에서 편모가족의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실천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거의 전무이며, 최근에 황성철 등(1997)의 연구와 박영희(1999)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특히 편모가족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대책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가족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복지서비스적 접근은 미약했다. 최해경(1997)은 가족관계가 편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의 결정적 요소임을 밝힌 연구에서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족의 관계와 개입방법들을 고찰해 보고, 가족관계 강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집단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평가해 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편모가족관계의 특성

가족관계나 가족기능은 여러 가지로 개념화되고 있지만, Olson과 Russel, Sprenkle 등이 가족에 대한 설명 개념들을 종합하여 결속력과 적응력의 두 개념으로 도식화한 씨컴플렉스 모델이 가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최선희, 1998).

가족의 적응력은 가족성원들이 가족체계를 변형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편모가족의 경우는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위기와 그로 인해 변화된 생활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상의 여러 발달 과제에 맞게 가족체계를 변형시켜 나가야 하는 복합적인 과업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Weltner(1982), Wedemeyer와 Johnson(1982: 45), Peck와 Manocherian(1989), Crosby와 Jose(1993) 등은 편모가족이 직면하는 적응 과업들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역할의 변화와 관련된 과업들이었다. 이러한 과업에 기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편모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된다(Weltner, 1982). 우리나라에서도 편모 가정은 가족의 여러 기능 가운데, 역할기능과 행동통제기능에서 자녀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특히 편모가족이 된지 7년 이상인 가족이 이 두 영역에서 일반가족보다 낮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복순, 2000).

가족의 결속력은 가족 내의 한 성원이 다른 성원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특히 대부분의 편부모 가족은 세대간의 거리와 그 거리의 유지가 주된 문제가 된다(Crosby et al., 1993). 편모는 자신이 가족 밖에서 활동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친구 체계로 들어가는 것을 지지해 주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은 각자의 친구들과 소원해진 상태로 친밀감을 형성하여, 세대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편모의 부모역할에 있어서는 온정적/지지적 관여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영희, 1996), 세대간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모가족과 일반가족 사이에 정서적 반응기능, 정서적 관여기능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권복순, 2000), 세대간 경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편부모 가족이 많은 문제들에 접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유능하고 성공적이라고 보는 견해를 토대로 하여 정상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편모가족의 심리적 복지는 대체적으로 일반가족보다 낮게 인식되고 있어(Doherty, Su & Needle, 1989; 조희선, 1991; Marks, 1995; 최해경, 1997), 이들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편모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편모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체계론적 입장에서 보면, 가족은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결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른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편모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위기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Double ABCX 모델은 특히 편모가족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하여 많은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 이 모델에 따르면, 편모가족은 편부모 가족으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뿐 아니라, 이미 적응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요구와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Nadenichek, 1990). 첫째는 실용적인 문제들로, 가사관리, 재정, 가사와 직장생활의 조정, 혼자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부담, 시간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편부모보다 편모에게 더 힘든 경험이 되며(Hetherington, Cox, & Cox, 1978; Yawkey, 1990: 47, 재인용),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큰 요인이 된다(Weiss, 1984; Pichitino, 1981; 황성철 등, 1997; 박영관, 1998). 두 번째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로, 혼자가 된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매우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반응인데, 편부모가족이 된 이후 가족 성원들은 낮은 자존감, 우울, 역할 혼돈, 분노감, 절망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은 가족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편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그 영향이 완충되기도 하고 가중되기도 한다. 그러한 완충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편모 거인의 인지·정서적 특성과, 편모가족의 사회적 지지망을 주요 요인들로 보고 있다.

편모 개인에 대해서는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나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사별한 편모가 이혼한 편모보다 심리적 복지가 더 높다고 하나(Doherty, Su & Needle, 1989), 우울 정도는 사별이나 이혼한 편모에게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최혜경, 1997). 빈곤층의 편모들은 불안감보다 우울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김영희, 1996), 많은 모자가정의 여성이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성철 등, 1997). Sprenkle과 Cyrus(1993)는 특히 이혼한 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 분노를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가지게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을 무가치하거나 무기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혼의 심각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이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Plummer & Koch-Hattem, 1986). 따라서 편모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으로 겪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인해 형성된 무력감이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둘러싸여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편모 개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편모·자녀 특성 및 부모역할 수행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게 된다(김영희, 1996).

사회적 지지망도 가족관계, 그리고 편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과 상호연관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이는 상호 연결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한 강화를 제공해 주는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Whittaker & Garbarino, 1983: 5). 사회적 지지망에서 받게 되는 지원은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특히 저소득층 편부모 가족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Gladow & Ray, 1986). 이중 정서적 지원은 빈곤층 편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친척보다는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Price-Bonham & Balswick, 1980; 김영희, 1996; 허정원, 1997; 김오남, 1998). Gerstel(1988)의 연구에서는 편모는 특히 친척의 도구적 지원에 장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해경(1997)은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편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허정원(1997)은 이혼 후 편모가 어떤 종류이든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 우울감이 더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사회적 지지의 이용정도보다 지지 이용자의 주관적 인지가 높은 경우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황성철 등(1997)은 영구임대주택의 모자가정 여성들은 사회적 고립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3) 편모가족 개입에 대한 연구

편모가족을 위한 개입은 각기 다른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개발되어 왔다. 스트레스 이론이나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입법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다소 급진적 관점에서 출발한 역량강화 이론 등에서 구체적인 실천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론적 배

경에 따라 선호하는 개입형태에 차이가 있는데, 스트레스 이론에서는 개인지향적인 접근을, 체계이론에서는 가족단위의 접근을, 역량강화 이론에서는 집단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개입형태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실증적 비교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Kissman 등은 전문가가 지도하는 집단과 자조집단의 형태를 강조하면서, 이들 두 집단은 모두 편모가 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험과 생각들을 교환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Kissman et al, 1993: 83). 특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나, 이혼한 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집단은 변화에 대해 적응을 촉진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고, 대처 기술을 학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보고가 있다(Bell, Charping, & Strecker, 1988; Crosbie, Burnett, & Newcomer, 1990). 또한 이들 편모가족에 대한 개입을 할 때에는, 편모가족이 항상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시간제한적인 구조화를 하는 것이 좋으며(Kirschner & Kirschner, 1986), 지지집단이나 교육, 워크샵 등의 형태도 유용하다고 한다. 특히, 지지집단과 사회참여는 편모가족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다(Kiston & Raschke, 1981).

1980년대 이후, 상담 및 교육 세팅에서 편모가족에 대해 개입하기 위한 원칙이나 전략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Sprenkle 등(1993)은 교류분석, 합리적-정서적 이론, 분석적 이론, 행동주의 및 형태심리학 등의 이론을 토대로,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입원칙을 제시하면서, 편모가족을 위한 개입은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개입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편모가 외적인 사건에 부여하는 자기파괴적 의미를 개조하는 것과, 자원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둘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편모가족에 접근할 때에는 지지적, 교육적, 그리고 직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Crosby 등(1993)은 사별한 편모가족에게 유용한 개입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가족을 위해 중요한 공동체뿐 아니라, 대처 과정을 보완해 주는 데 숙달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치료에서는 애도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독립과 자기역량(*self-sufficiency*)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때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는 역할 명료화, 자녀와의 사이에서 의사결정과 권위 패턴이 모호해지는 문제 해결,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 생존 가족의 약점보다는 강

점 강조, 세대와 위계적 경계선 명료화 및 재정립, 과잉의존성 예방, 가족의 분리와 밀착 다루기, 재정적 재구조화 등을 들었다.

Aponte와 Minuchin 등은 체계이론, 특히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을 토대로 하여 빈곤 편부모가족에 대한 임상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Patterson, Williams, Grauf-Grounds & Chamow, 1998: 145). 그들은 부모역할을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부모의 개인적 자원들을 개발시키도록 격려하고, 보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자원들로의 접근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Weltner(1992)는 구조적 가족치료 접근에서, 편모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편모의 유능성(competency)을 잠식하면서 가족에 영향을 미치므로 치료나 프로그램 개발시 중요한 것은, 편모가 가장으로서의 집행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세대의 경계선을 정립하여 자녀와의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CST(Comprehensive Family Therapy)는 Kirschner 등이 체계론적 치료와 정신역동적 치료를 통합한 가족치료 모델로, 이를 편부모 가족에 적용할 때에는 보다 직접적인 원조를 해야 한다고 한다(1986). 편모가 보다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도록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자는 역할 모델이 되고, 지지망과 같은 다른 자원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성주의이론에서 나온 성 인지적 실천방법(the gender-sensitive practice)으로, 편모가족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강조하는 접근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가족의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을 비효과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선입견에 반박하고, 클라이언트는 실천가가 분위기, 관계, 자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절차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 도움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Kissan et al., 1993).

3. 편모가족관계 강화 집단 프로그램

1) 집단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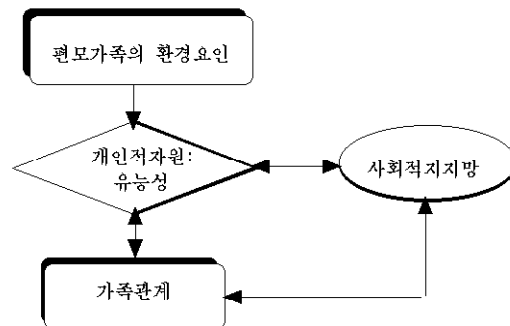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편부모 가족이 많은 문제들에 접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유능하고 성

공적이라고 보는 경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편모가족은 가족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요구를 대처해가야 하는 체계로 보고, 특히 경제적 압박을 받는 저소득층의 편모가족을 위해 예방적 차원의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편모가족을 위한 개입에 대한 고찰을 한 결과, 편모가족에 대한 개입은 대개 스트레스 이론이나 체계이론 - 특히 구조적 가족치료이론, 그리고 역량강화이론, 인지이론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편모가족을 위한 개입 원칙이나 전략에 있어서는, 편모 가장 개인의 유능성과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를 거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편모 개인의 유능성은 박영희(1999)의 연구에서도 편모가족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확인된 바 있다. 이는 편모가족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유능성과 사회적 지지망 확대의 차원들을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요인들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자는 이를 집단 프로그램 개발의 틀로 하여, 이 세 가지 요인들을 각각 프로그램의 목표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입의 형태로는,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편모가족의 특성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뚜렷한 치료목적이 아니고는 장기간의 집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의 집단 프로그램 형태가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단기간의 집단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 지지망 확대나 가족관계 강화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Kissman 등(1993)이 제안한 지지집단의 형성을 부차적인 목표로 하여,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그림 1> 편모가족관계와 상호작용하는 요인들



자 했다. Sprenkle등(1993)이 강조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은 교육적이고 지지적인 동시에 편모가족을 직면시키는 성격을 가지도록 하였다.

2) 프로그램 구성단계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실시한 편모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이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1단계에서 편모가족의 관계 및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세 가지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그에 따라 2단계에서는 집단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한 후, 3단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구성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개입기법들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림 2> 프로그램 내용 구성 단계



〈표 1〉 프로그램 내용

회기	활동명	내용	준비물
1	시작은 반이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설문지 작성 ▪ 프로그램 소개 ▪ 집단성원 소개 및 참석 동기 발표 ▪ 가족의 생활주기 교육 	명찰, 개인파일, OHP, 설문지, 필기도구
2	우리가족 거울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정 결과에 대한 feedback ▪ 편모가족의 생활주기 및 적응과제 교육 	필기도구, 개인파일, OHP, 유인물, 과제카드
3	우리는 할 수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파괴적 의미개조를 위한 역할 연습 ▪ 가족조각 ▪ 새로운 행동양식 계획 (자녀관계, 스트레스 관리) 	필기도구, 개인파일, 인지재구조화 카드, 밧줄, 과제카드
4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지지망 분석 ▪ 사회 지지망 확대 전략 개발 ▪ 새로운 행동양식 계획 (시간 관리) 	필기도구, 개인파일, 역할분담카드, 유인물, 과제카드
5	즐거운 행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노 다루기 ▪ 사회 지지망 확대 전략 개발 ▪ 즐거운 가족행사 만들기 	필기도구, 개인파일, 가족행사카드, 사회지지망확대계획카드, 유인물, 과제카드
6	축하 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평가 ▪ 수료 축하 파티 ▪ 사후 계획 ▪ 설문지 작성 	필기도구, 개인파일, 설문지, 수료증, 간단한 선물, 점심뷔페

본 프로그램은 총 6회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2시간 30분씩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함께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모집할 때 직장의 문제를 고려하여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계획했으나 편모들과의 개별적인 사전접촉을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편모들이 정규적인 직업이 없고, 자녀들의 하교시간 전인 오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금요일 오전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전반적인 집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고, 사회복지학과 학생 2명과 전북여성단체연합의 실업극복여성지원센터 선생님 2명이 보조지도자로 참여하였다. 보조지도자의 역할은 동반한 자녀 돌보거나 통제, 설문지 작성 보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준비 등이었으며, 무엇보다 본 프로그램 참가성원들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 중에 수시로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개입을 하도록 하였다.

4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내용은 <표 1> 과 같다.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과정에서 가장 고려한 것은 보조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지도자가 최대한 철저하게 프로그램 활동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편모의 정서적 특성가운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토대로 한 유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편모들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준비상황에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참가자의 명단을 파악해서 미리 명찰이 붙은 개인파일을 준비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교육방식도 단순히 강의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시청각 자료, 칼라 OHP 자료, 칼라 유인물, 쓰기 편하게 구성된 체크목록 카드 등을 마련하여, 보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4.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집단 프로그램에 참가한 편모가족의 가장 9명이다. 성원 모집은 전북여성단체연합에서 1998년부터 실시한 생계비지원사업의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들 가운데 편모가족의 가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때 전화연락은 편모들과 기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전북여성단체연합의 선생님이 담당하였다. 전화상으로 참가의 뜻을 밝힌 여성은 모두 35명이었으나, 1회 참가자는 22명이었으며, 1회와 2회 사이에 9명, 2회와 3회 사이에 3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했고, 6회 중 3회 이상 결석한 1명을 제외하여 총 9명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중도탈락이 발생한 이유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편모가 저소득층이어서 구직과정에 있는 성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중도탈락자 13명 가운데 기초자료를 제출한 9명 중 7명이 초등학교 졸업, 1명이 무학으로 나타나 저학력 여성이 많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탄적 사항(N = 9)

ID	연령	학력	혼자된 이유	혼자된 기간	가족수	종교	직업	복지수혜
1	26	고졸	사별	1년 6개월	4	기독교	없음	자활보호
2	33	대졸	이혼	3년 4개월	3	불교	있음	거액보호
3	34	고졸	이혼	6년 4개월	3	불교	있음	자활보호
4	36	고졸	남편가출	2년	4	없음	없음	없음
5	38	고졸	사별	10년	2	기독교	없음	의료보호
6	40	고졸	이혼	7년	3	불교	없음	자활보호
7	41	고졸	이혼	18년	2	없음	없음	없음
8	46	고졸	이혼	5년 4개월	4	불교	있음	없음
9	47	초등졸	이혼	8년 2개월	2	불교	있음	자활보호

연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보면 평균 연령이 37.8세(표준편차 6.6)로 최소 26세에서 최고 47세였다. 이들의 학력은 77.8%가 고졸이었으며 혼자된 이유는 이혼이 66.5%, 사별이 22.2%, 남편의 가출이 11.1%로 나타나 대부분이 이혼가정이었다. 혼자된 기간을 보면 1년 6개월에서 18년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6년 10개월 동안 혼자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평균 3명(표준편차 .9)이었고, 77.8%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55.5%가 직업이 없었으며 66.7%가 복지수혜를 받고 있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세 자영업(2명), 영세 가내수공업, 사회복지관의 초등학생 취미교육 강사로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기관 선생님의 권유로 인한 경우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는 행동이나 생활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8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본 프로그램이 가족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사전 및 1회에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느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원은 1명뿐이어서, 반드시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각하는 편모가족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 프로그램 평가 방법

(1) 양적 분석

①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전체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 6회 종결직후에 프로그램 평가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구조에 관한 질문-회기, 시간, 참석자수-3문항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질문 8문항, 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질문 5문항과 전체적인 소감을 묻는 개방형 질문 1문항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② 무기력 및 가족관계 측정도구

본 프로그램의 목표인 무력감 감소와 가족관계 강화를 검증하기 위해, 성원의 무력감과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사전(1회 시작직후 실시), 사후(6회 끝나면서 실시)에 작성토록 하여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종결된지 4개월 후 추후 집단 모임을 가지고,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무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기명(1992)이 개발한 학습된 무기력 진단 척도(Learned Helplessness Scale) 45문항 중 4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신뢰도 계수는 .891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무기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 번안된 Olson 등이 개발한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가족 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FACES III는 총 20문항으로 가족의 결속력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적응력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결속력이 .784, 적응력이 .848이었다. 이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최선회가 한국에 맞게 재조정된 것에 따라(1998: 253), 가족관계를 조화형, 중간형, 극단형으로 구분하고, 사전에 측정한 가족관계유형이 극단형에서 중간형이나 조화형으로, 중간형에서 조화형으로 또는 조화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가족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자 했다.

(2) 질적 분석

① 사회적 지지망 측정 도구

사회적 지지망에 대해서는 사전에 측정한 결과만을 내용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개입은 4회와 5회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5회에 4명이 결석을 하여 이 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으므로, 이를 사후에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Whittaker 등(1983)의 사회적 지지망표를 사용하였다. Whittaker 등의 사회적 지지망표는 구체적, 정서적, 정보적 지원의 세 종류 지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그 출처와 정도, 방향성을 기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② 집단과정 기록서

보조 지도자와 본 연구자가 각 회기가 끝난 후 공동으로 작성한 집단과정 기록서를 분석하여, 집단과정의 발달단계와 성원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았다.

3) 자료분석방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 빈도분석을 하였고, 무력감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Wilcoxon matched pairs 검증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사전 - 사후, 사후 - 추후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무력감 감소효과를 분석하고자 했으며, 분석대상 인원이 적어서, 모집단이 정규집단이라는 가정을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모수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가족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3유형으로 구분한 후 사전, 사후, 추후점수를 비모수통계기법인 Kruskal-Wallis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지지망과 집단과정 기록서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을 하였다.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구직과정에 있는 저소득층 편모 가장이라는 점 때문에

그 경제적 및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집단 비교설계를 하지 못했고, 대상자의 수가 적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5. 연구결과 및 모델 제언

1) 양적 분석 결과

(1) 프로그램 평가

전체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 종결시 프로그램 평가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5점척도상의 평가를 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4.0 이상의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평가 설문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의 난이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했던 연구자의 의도대로 진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집단에 대한 친밀감은 평균 4.7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혼자된 이유나 연령, 학력의 차이가 다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정서적으로 가까워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N = 9)

구분	전혀아니다	아닌 편	보통	그런 편	매우그렇다	평균
교육적	-	1	1	4	3	4.0
유익	-	-	1	4	4	4.3
재미	-	-	2	3	4	4.2
고난도	3	1	5	-	-	2.2
참신성	-	-	4	2	3	3.9
친밀감	-	-	3	2	4	4.7
만족도	-	-	1	6	2	4.1
권유의사	-	-	1	5	3	4.2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회로 구성된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6%, 짧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44.4%로 나타나, 6회나 그 이상이었던면 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1회의 시간은 본 프로그램의 경우 2시간 30분 정도였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88.9%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모임의 성원 수는 10~14명, 20~24명이 각각 44.4%로 나타나 의견이 다소 양분되었다. 10명 이하나 25명 이하의 너무 작은 집단이거나 큰 집단에서는 10~25명 정도의 집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프로그램 중에 실시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유익한 활동으로는 자기 파괴적인 사고를 바꾸기 위한 인지 재구조화 활동,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교육, 스트레스 및 자녀관리를 위한 전략을 유인물로 배포하고 토론하는 활동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으로는 가족조각을, 다음으로 과제하기, 설문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유능성과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활동들을 동순위로 들었다. 가장 새로웠던 활동으로는 가족조각, 자

〈표 4〉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평가(N = 9)

프로그램 횟수(6회)		프로그램 시간(2시간30분)		참석자수(9명)	
너무길다	-	너무길다	-	5~9명	-
긴편이다	-	긴편이다	-	10~14명	4
적절하다	5	적절하다	8	15~19명	1
짧은 편이다	4	짧은 편이다	1	20~24명	4
너무 짧다	-	너무 짧다	-	25~29명	-

〈표 5〉 프로그램 활동 선호도(N = 9)

순위*	유익한 활동	재미있는 활동	새로운 활동
1	인지재구조화(12)	가족조각(10)	가족조각(13)
2	가족생활주기 교육(9)	과제(5) 자신 및 가족 이해(5)	자유토론(7)
3	스트레스, 자녀관리(8)	-	가족생활주기교육(6)

*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의 가산점을 주어 조정한 순위이며 ()안의 숫자는 조정된 점수를 합산한 것임.

유도론, 가족생활주기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가족생활주기 교육에는 일반적인 가족생활주기와 편모가족의 생활주기 및 적응 과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 참가자들은 이를 유익하면서도 새로운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관계에 대한 밀착과 분리와 같은 경계선의 주제를 가지고 실제 성원의 가족을 조각한 것에 대해, 성원들은 재미있고 새로운 활동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필요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응답을 하여 모든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무력감과 가족관계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종결한 성원 9명 가운데 사전-사후 설문지를 작성한 성원은 8명, 사후-추후 설문지를 작성한 성원은 7명이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무력감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무력감에 대한 사전-사후, 사후-추후 점수의 평균비교를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전-사후의 검사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전의 무력감은 평균 124.1, 사후의 평균은 107.4로 나타나 무력감이 프로그램 참가이후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전과 사후의 점수차이를 보면 사전보다 무력감 점수가 낮아진 사례는 5사례였으며, 오히려 높아진 사례는 2사례, 같은 점수였던 경우가 1사례 있었다. 이 때 T값은 3으로 사례수 8인 경우 유의수준 .05의 임계치인 4보다 작으므로 사전과 사후 무력감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4개월 이후에 추후검사까지 응한 7명의 사후-추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 사후의 무력감 점수 평균은 105.4, 추후의 점수는 109.6으로 나타나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사전처럼 높아지지는 않았다. 이 때 T값(11)이 사례수 7일 때 유의수준 .05의

〈표 6〉 사전-사후, 사후-추후 무력감 점수비교

측정시기	평균	사례수	점수 범위	윌콕슨 T값 순위차이수
사전	124.1	8	105~159	3**
사후	107.4 ¹		79~123	
사후	105.4 ¹	7	79~123	11
추후	109.6		91~133	

** p<.05

† 동일한 사후측정간에 있어서 평균치의 차이는 사례수의 감소로 인한 것임.

임계치인 2보다 크므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다. 개별적인 점수의 변화를 보면 사후점수보다 추후점수가 더 낮아진 경우는 3명이고, 더 높아진 경우가 4명이었다. 무력감이 높아진 4명의 성원 중 2명은 각기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명은 4개월 사이에 재정문제와 건강문제가 있었고, 다른 1명은 모자원에 입소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입소여성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편모의 내적 자원을 위협하여 유능성이 감소되고, 대신 무력감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편모 가장의 무력감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으나, 추후검사시 다소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개입이나 지지가 없으면 그러한 효과가 유지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의 정도에 따라 조화형, 중간형, 그리고 극단형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전, 사후, 추후의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7>에 나와 있다. 표를 보면 사전에 조화형 가족이 6가족으로 가장 많았으나 사후, 추후로 갈수록 조화형 가족과 극단형 가족은 줄어들고 중간형 가족은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선희의 연구(1998)에서 한국의 가족은 극단형 가족이 전체 가족의 약 1/10정도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3정도가 극단형에 해당되고 있어, 가족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전, 사후, 추후의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가족관계 유형에 있어서의 분포의 차이는, 비모수 통계기법인 Kruskal-Wallis 검증을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본 집단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가족관계의 강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유형의 변화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조화형

<표 7> 사전-사후-추후 가족관계 유형 비교

가족관계유형	사 전	사 후	추 후
조화형	6	3	3
중간형	-	3	4
극단형	3	2	-
계	9	8	7

$$\chi^2 = .244, p = .885$$

가족이 감소되는 추이는, 사후와 추후에 각각 1명씩 감소된 성원이 모두 조화형 가족에 속한 성원이었다는 사실로 부분적으로 설명이 된다. 이들을 제외하고 가족관계 유형의 변화 추이를 개별 가족별로 분석해 보면, 조화형 가족이 중간형으로 이동한 경우가 1사례 있었고, 극단형 가족이 중간형으로 이동한 경우가 3사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다 나은 가족관계 유형으로 강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족관계 유형의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질적 분석 결과

(1) 사회적 지지망

참가자들이 작성한 사회적 지지망표를 내용분석하면서 지원의 정도에 따라 해당 빈도에 지원이 거의 항상 있다고 한 경우는 2점을, 간혹 있다고 한 경우는 1점을 곱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 구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가운데 구체적 지원을 가장 적게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지원을 받는 중에서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빈도는 19, 정보적 지원을 받는 빈도는 17, 구체적 지원을 받는 빈도는 총 16이었다. 반대로 지원을 주어야 하는 경우는 구체적 지원이 8, 정서적 지원이 14, 정보적 지원이 15로 나타났다. 지원의 방향이 양방향인 경우는 구체적 지원이 18, 정서적 지원이 58, 정보적 지원이 50으로 나타났다.

편모 가정은 동거가족에게서 지원을 받기보다는 주는 입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편모의 입장이고, 한 성원의 경우는 절환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거가족 속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편모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전체 관계유형 가운데서 편모에게 지원을 주는 것은 역시 친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 지원의 경우는 친척 쪽에서 일방적으로 편모에게 주고 있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나 양방향보다 더 많았다.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의 경우도 역시 친척들이 편모에게 주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친구들이나 직장, 학교와 같은 곳에서 받는 지원은 친척들에게서 받는 것보다 적었고, 지원의 방향도 양방향인 대 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에서는 양방향도 적게 나타났고, 정서적 지원

이나 정보적 지원에서 양방향의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웃에게서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대부분이 양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 가장은 동거가족에게서 지원을 받기보다는 주는 입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편모의 입장이고, 한 성원의 경우는 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거가족 속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편모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전체 관계유형 가운데서 편모에게 지원을 주는 것은 역시 친척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 지원의 경우는 친척에서 일방적으로 편모에게 주고 있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나 양방향보다 더 많았다.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의 경우도 역시 친척들이 편모에게 주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친구들이나 직장, 학교와 같은 곳에서 받는 지원은 친척들에게서 받는 것보다 적었고, 지원의 방향도 양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에서는 양방향도 적게 나타났고, 정서적 지원이나 정보적 지원에서 양방향의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웃에게서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대부분이 양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들과 일관성 있는 것으로 적은 수의 대상이지만 그 양상은 똑같이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 분석을 통해 편모의 사회적 지지망이 편모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이

〈표 8〉 사회적 지지망 분석결과

관계유형	구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받음	주고 받음	줌	받음	주고 받음	줌	받음	주고 받음	줌
동거가족	2	-	4	2	1	10	2	2	6
친척	9	5	4	10	11	2	9	9	6
직장/학교	1	6	-	3	18	-	2	11	-
조직들	-	-	-	-	1	-	-	-	-
친구	2	5	-	2	16	1	1	18	-
이웃	-	2	-	1	8	-	1	10	1
전문가	-	-	-	-	2	1	-	-	-
기타	2	-	-	1	1	-	2	-	2

크한 내용분석의 결과들을 성원들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안 및 확대전략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그 결과 성원들은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본 집단의 종결 이후의 지지집단 형성 가능성에 대해 전원 동의를 하게 되었다.

(2) 집단과정 분석

집단과정 기록서를 토대로 하여 각 회기마다의 집단 진행과정과 집단 발달에 따른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은 매회 거의 같은 구조로 진행되었다. 처음 모임에 오면 간단한 다과와 함께 서로 안부를 물으며 비공식적으로 시작하여, 성원이 모두 참석한 후 지난 주 과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잘한 성원에 대해 모든 성원들이 지지를 해 주었으며, 교육과 성원들의 상호작용, 활동 등을 혼합하여 진행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에는 다함께 점심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회와 2회는 탐색단계로 볼 수 있는데, 특히 1회는 성원의 수(22명)도 많고, 자녀를 동반한 편모가 4명이나 있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으며, 설문지 작성 및 집단에 대한 소개와 성원들의 자기 소개,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족생활 주기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 집단 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적은 회기였다. 그런 중에도 자기소개를 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모임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성원들이 2~3명 정도 있었다. 2회에는 1회보다 상호작용이 증가하였으며, 지도자가 성원들의 자기표현에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상호작용을 강화해 나갔다.

3회부터 5회까지는 집단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상호작용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기감정 노출 정도가 높아져서, 거의 매 회기마다 자기의 인생 경험을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에 대해 서로 지지하고, 조언을 주고,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해 예측도 해주는 등의 도의가 활성화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을 끄는 문제가 나올 정도였다. 특히 4회 때는 매번 아기를 업고 열심히 참석하기는 하지만 가장 소극적이던 성원이 자신의 경험을 노출하게 되었고, 모든 성원들이 이에 대해 저마다 긍정적인 지지를 해 주었다. 3회에서 5회까지의 회기동안 지도자가 준비한 교육 자료나 토의 주제들에 대해 가족조각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는데, 거의 모든 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성원간에 다른 의견은 있었으나 다른 집단과는 달리, 이것이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않았고, 모든 성원들은 이런 모임이 다른 모임과는 달리 너무 편하고, 여러 선생님

들이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했다. 그러나 5회에는 4명이 결석을 하여, 준비한 사회적 지지망 확대전략을 위한 활동 대신에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경험의 공유를 하게 하였다.

6회에는 5회때 하지 못했던 활동을 간단하게 실시하고, 사후 설문지와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집단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서 집단 종결을 했다. 특히 6회 때에는 성원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모두 완수했다는 성취감을 갖도록 간단한 수료식과 파티를 준비했는데, 성원들은 이렇게 종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면서, 계속 만나고 싶은 의사를 표현했다. 그에 대해 지도자도 동의하면서, 지지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전원 이 모임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그 자리에서 회장을 뽑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집단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편모가족이라는 동질성이 편모가 된 이유나, 성원의 연령 등에 상관없이 가장 큰 결속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동질성으로 인해 성원들은 비방어적으로, 진실되게, 그리고 공감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유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측면이 지지적인 작용을 하여, 단기간에도 두려움 감소의 효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령 및 혼자된 이유에 있어서의 이질성은 경험의 차이로 인한 조언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을 더욱 풍부(enrichment)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3) 편모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모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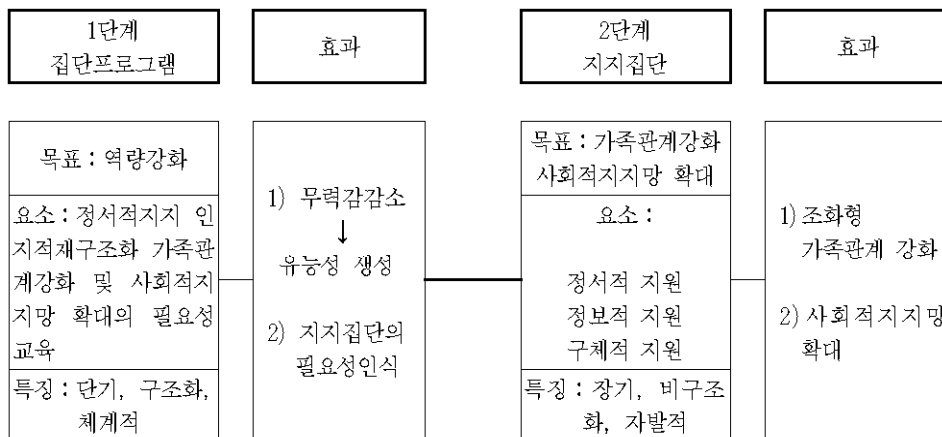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집단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편모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편모가족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편모 개인의 유능성과 사회적 지지망을 매개변수로 하는 3차원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극단형 가족의 비율이 일반 가족에서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점과, 그 가족관계 유형의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장기적인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입장에서 또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편모

가족 당사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집단프로그램은 단기라는 특성과 편모라는 동질성 때문에 상호작용적이고 지지적인 집단사회사업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무력감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편모가족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집단프로그램을 포함한 보다 장기적인 접근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2단계로 구성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각 단계에서의 목표와 중요 요소, 특성 및 기대효과는 <그림 3>과 같다.

2단계 접근 모델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전화로 참가의 뜻을 밝힌 성원들 35명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종결한 성원은 9명으로, 그 중도탈락률(75.3%)을 감안하면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참가자수보다 4배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중도탈락률은 박영희(1999)의 모델개발 과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현상으로, 이는 경제적 압박을 받는 편모가족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중도탈락이 주로 전화접촉과 1회 사이(35명 중 37.1%), 1회와 2회 사이(35명 중 34.3%)에 일어난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모임이나 개별적 접촉으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개요를 설명해 주어, 미리 탈락자와 참가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참가 자격에 있어서는 학력을 제외하고는 혼자된 이유

<그림 3> 편모가족관계 강화프로그램의 2단계 접근모델



나 시기, 연령에 있어서 이질적이어도 무방할 것이다. 프로그램에는 교육적 요소가 많으므로, 적어도 중졸 이상은 되어야 이해하기 쉬우며, 특히 저학력의 편모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교육방법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크게 2단계로 구성하여, 1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시행했던 집단프로그램을 단기로 실시하되 6회보다는 1~2회 정도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집단 프로그램 종결 후에는 2단계의 지지집단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지지집단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단계 집단프로그램에서 무력감을 줄이는 대신 유능성을 주는 역량강화(empowering)의 요소를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가족관계 강화에 대한 동기와 사회 지지망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지집단의 장기적인 목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1단계 집단프로그램에서는 무리하게 가족관계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그의 중요성과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시켜 주고, 그러한 문제를 위해 장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1단계에서는 집단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2단계에서는 집단의 자문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결론

우리사회에서 편모가족은 하나의 가족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저소득층의 편모가족에게 필요한 가족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봄으로써 편모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편모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편모의 무력감과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가 편모가족과 상호작용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토대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0년 6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2시간 30분씩 6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편모의 무력감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들의 가족관계와 사회지지망을 분석해 본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가족관계에 있어서 조화형인 경우가 더 많았지만, 극단형 가족에 해당하는 가족이 1/3로 일반 한국가족에서의 1/10보다 많았으며, 사전·사후·추후 측정을 통해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영분과 양심영(1999)은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을 살펴본 결과, 가족의 요구에 민감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가족관계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가족을 통합적인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여, 일상의 생활 위기에 접해있는 가족에게 보존과 성장에의 잠재력이 있음을 깨우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2단계 접근모델은, 특히 저소득층 편모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은 물론이고 여성단체,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 등에서 실천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하나의 방향과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편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에는 최저생계비 보장방안과 같은 사회의 공식적 지지체계 구축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 기관 및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더욱 보완되고, 그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한유진. 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 연구》 20, 봄호, pp. 60~73.
- 공세권·조애저·허미영. 1995. 《가족결손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5-3.
- 권복순. 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40, pp. 5~37.
- 김영희. 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 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숙. 1994.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와 가족복지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9. 겨울호. pp. 5~18.
- 김정자. 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 방안에 관한 기술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 1995.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희. 1999. "편모가족 개입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호. pp. 53~91.
- 보건복지부. 1991. 1992. 1993. 《보건사회백서》.
- 보건복지부. 1997. 《모자가정 실태조사결과》.
- 신화용·조병은. 1996.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96 가정복지 세미나 :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 서울특별시/한국가족관계학회. pp. 5~31.
- 이경희·이소희·방은영. 《가족복지》, 1995. 서울 : 형설출판사. p. 136.
- 이영분·양심영. 1999.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3. pp. 117~148.
- 이운석. 1995. "도시지역 여성가장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1993.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pp. 105~154.
- 정현숙. 1996. "이혼과 자녀들의 적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96 가정복지 세미나 :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 서울특별시/한국가족관계학회. pp. 131~154.
- 정현숙·서동인. 1996.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96 가정복지 세미나 :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 서울특별시/한국가족관계학회. pp. 33~64.
- 조희선. 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선희. 1998. "Circumplex Model의 한국적 임상적용을 위한 일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6. pp. 241~264.
- 최연실 등 공역. 1995. 《새로보는 가족관계학》, 도서출판 하우.
- 최해경. 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pp. 377~395.
- 통계청. 1996.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고서》.
- 한경혜. 1993. "한국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pp. 79~1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편부모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 허정원. 1997.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지지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성철·최선희. 1997.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1. pp. 65~86.

- Bell, W. M., Charing, J. W. & Strecker, J. B. 1988. "The Client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Divorce Adjustment Group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3(2), pp.9~32.
- Crosbie, L., Burnett, M. & Newcomer, L. L. 1990. "Children of Divorce: The Effects of Multimodal Intervention." *Journal of Divorce*, 13(3), pp.69~78.
- Crosby, J. F. & Jose, N. L. 1993. "Death: Family Adjustment to Loss." In Charles R. Figley, & Hamilton I. McCubbin, (ed.), *Stress and the Family*. New York: Brunner/Mazel. Vol.2. pp.76~89.
- DeGarmo, D. S. & Kiston, G. C. 1996. "Identity Relevance and Disruption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for Widowed and Divorc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pp.983~997.
- Doherty, W. J., Su, S. & Needle, R. 1989. "Marital Disrup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Pane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pp.72~85.
- Gerstel, N. 1988. "Divorce and Kin Ties: The Importance of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pp.209~219.
- Gladow, N. W. & Ray, M. P. 1986. "The Impact of Informal Support Systems on The Well-being of Low Income Single Parents." *Family Relations*, 35, pp.113~123.
- Gongla, P. & Thompson, E. 1987. "Single-parent families" In Sussman & 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397~625.
- Gove, W.R. & Shin, Hee-Choon. 1989.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ivorced and Widow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pp.122~144.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78. "Stress and Coping in Divorce: A Focus on Women." In J. Gullahorn, (ed.), *Psychology and Transition*. New York: B. H. Winston & Sons. Yawkey에서 재인용.
- Kirchner, D. A. & Kirchner, S. 1986. *Comprehensive Family Therapy: An Integration of Systemic and Psychodynamic Treatment Models*. New York: Brunner/Mazel.
- Kissman, K. & Allen, J. A. 1993. *Single-Parent Famili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Kiston, G. & Raschke, H. "A Review of Research on divorce: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vorce*.
- Marks, N. F. 1995. "Midlife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Adult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6(1), pp.5~28.
- McIntyre, E. 1986. "Social networks: potential for practice." *Social Work*, 31, 6, pp.421~426.

- Nadenichek, P. E. 1990. "Understanding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in Single Parent Families." In Thomas D. Yawkey & Georgianna M. Cornelius. (eds.), *The Single Parent Family-for Helping Professionals and Parents*. Lancaster: Technomic Publishing Co. pp.39~60.
- Olson, H. D. 1986.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
- Patterson, J., Williams, L., Grauf-Grounds, C. & Chamow, L. 1998. *Essential Skills in Family Therapy: From the First Interview to Termination*. New York: The Guilford Publication., Inc.
- Peck, J. S. & Manocherian, J.R. "Divorce in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In B. Carter & M. McGoldrick. (2nd Ed.),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Boston: Allyn and Bacon. pp.335~398.
- Plummer, L. P. & Koch-Hattem, A. 1986.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to Divorce." *Family Relations*, 35. pp.523~529.
- Price-Bonham, S. & Balswick, J. O. 1980. "The Noninstitutions: Divorce, Desertion, and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pp.959~972.
- Sprenkle, D. H. & Cyrus, C. L. 1993. "Abandonment: the Stress of Sudden Divoce." In C. R. Figley. & H. I. McCubbin. *Stress and the Family*. New York: Brunner/Mazel. Vol.2. pp.53~75.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Social Work and Behavioral Sciences Institute*. Whittaker, J. K. principal Investigator, Elizabeth M. Tracy. Project Coordinator.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Elizabeth M. Tracy.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1998. 《사회복지실천기법과 지침》, 나남출판. p.399에서 재인용.
- Weiss, R. S. 1984. "The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Income and Consumption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pp.115~127.
- Weltner, J. S. 1998. "A Structural Approach to the Single-Parent Family." *Family Process*, 21: 2. pp.203~210.
- Whittaker, J. K. & Garbarino, J. 1983. *Social Support Networks: Informal helping in the human services*. New York: Aldine.
- Yawkey, T. D. & Cornelius, G. M. (eds.). 1990. *The Single Parent Family-for Helping Professionals and Parents*. Lancaster: Technomic Publishing Co.

A Study on the Group Program Development for Reinforcing Family Relations of Single-mother Families

Chung, Soo-Kyoung

(Jeonju University, Dept. of Social 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group program model for reinforcing family relations of single-mother families as one approach to family welfare service. As previous research findings about problems of single parent families were reviewed and the framework for the program development was identified, a 6 sessions group program was planned and applied to 9 single-mother families from June 2nd to July 7th. Program evaluation questionnaire, Scales measuring powerlessness and FACESIII for family relations, social support network tool, and group process recording were used for the evaluation of this program.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is program as very supportive, useful, and educational. The powerlessness was reduced in a statistically meaningful way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nd the result was found to be maintained for 4 months in the follow-up session. The family relations according to FACES III were mostly balanced and didn't show some significant change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program. The single mothers had little concrete supports from others, if any, had some from relatives. They rather had had to give supports for the other family members and reciprocally gave and took emotional or informational supports with friends or neighbo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2 step model consisted of brief group program and long term support group was developed and the practical methods were suggested for the single-mother families with low income.